

한중Zine

INChinaBrief

Vol.374 2019.08.26

미중 무역전쟁

- 원인 · 경과 · 쟁점 · 평가 및 전망

작 성 |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
이왕휘(leew@ajou.ac.kr)

목 차

- | | |
|-------|-------|
| 1. 개요 | 4. 경과 |
| 2. 원인 | 5. 평가 |
| 3. 영향 | 6. 전망 |

- 2018년 3월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2차례의 정상회담과 12차례의 고위급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고 있음
 -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10~25%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IT 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
 -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5~25%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미국 국채 비중 축소,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을 고려하고 있음

-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최대 쟁점은 이행 메커니즘(enforcement mechanism: 实施机制)임
 -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, 중국 국내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
 - 중국은 미국의 요구사항이 상호존중,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가주권을 침해한다고 반박하고 있음

- 미국은 디지털 보호주의/기술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무역전쟁을 패권경쟁의 전초전으로 비화하였음
 -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전 백악관 최고 전략가 스티브 배넌은 미중 무역전쟁을 세계 패권을 둘러싼 경제전쟁으로 규정하였음
 - 미국이 관세 이외의 수단을 동원하면서 무역전쟁은 투자전쟁, 기술전쟁, 환율전쟁, 금융전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
 - 설령 타협을 통해 휴전을 하더라도 양국관계가 무역전쟁 전으로 회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져 신냉전/냉전 2.0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

- 본보고서는 양국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에 발표한 자료와 통계를 체계적으로 비교·분석하였음

1. 개요

■ 현재 상황 및 쟁점

- 2018년 3월 시작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이 12번에 걸친 고위급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고 있음
 - 2018년 5월 합의안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함으로써 조기에 종전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음

- 2019년 4월 말 최종 합의안에 대한 중국의 수정요구를 미국이 거부한 이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음
 - 7월 30~31일 제12차 협상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 예고도 없이 3,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9월 1일부터 10%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음
 - 중국은 농산물 수입 중단을 통해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음
 - 8월 5일 중국인민은행이 1달러=7위안 붕괴(속칭 破七)를 용인한 직후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함으로써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으로 확대되었음
-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쟁점은 이행 메커니즘(enforcement mechanism: 实施机制)임
 -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, 중국 국내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
 - 무역적자의 해소에 필요한 관세 인하와 위안화 평가절상뿐만 아니라 산업정책과 경제정책 전반에 영향을 주는 국유부문 축소까지 거론하고 있음
 - 중국은 미국의 요구가 국가 주권을 침해한다고 반박하면서 상호존중, 평등 및 호혜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
 - 미국의 요구대로 국내법을 개정한다면,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심각하게 와해될 가능성이 높음
-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보호주의(digital protectionism: 数字保护主义)/기술민족주의(techno-nationalism: 技术民族主义)를 내세우면서 무역전쟁은 이제 패권경쟁의 전초전으로 비화되었음
 -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전 백악관 최고 전략가 스티브 배넌은 미중 무역전쟁을 세계 패권을 둘러싼 경제전쟁으로 규정하였음 (Bannon 2019)
 - 미국은 2007년 세계금융위기를 전후로 향후 첨단기술 경쟁의 핵심

산업인 인공지능(AI), 5세대 통신(5G), 사물인터넷(IoT), 핀테크(fintech) 등에서 미중 사이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었다는 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

-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2000년대 초반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한 중국을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심에서 몰아내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

■ 향후 협상 전망

- 미국이 관세 이외의 수단을 동원하면서 무역전쟁은 투자전쟁, 기술전쟁, 환율전쟁, 금융전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(余永定 2019)
 - 향후 양국이 타협을 통해 무역전쟁을 중단하더라도, 이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일 가능성이 높음
 - 양국관계가 무역전쟁 전과 같이 상호이익을 공유하는 차이메리카(Chimerica: 中美) / 공동의존(codependency: 相互依存)으로 회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음
 -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냉전 또는 냉전 2.0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임
- 본 보고서의 목적은 무역전쟁이 발생한 2018년 이후 진행 과정을 구체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임
 - 양국의 입장 차이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에 발표한 자료와 통계를 비교·분석함
 -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의 쟁점과 결과를 자세하게 정리하였음

2. 원인

1) 미국의 주장

■ 중국 책임론¹⁾

- 미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 경제 불균형의 시정을 위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요구해왔음
 - 중국의 GDP 대비 경상흑자는 줄어들어 2018년에는 0.36%까지 낮아졌지만, 대미 무역흑자는 계속 증가해왔음
- 중국은 1999년 WTO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시장개방과 경제개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
 - 중국에서는 아직도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
 - 서비스 부문에 대한 개방은 제한적이며 지적재산권도 충분히 보호되고 있지 않음
 - 미국은 유럽연합(EU)과 함께 WTO에서 중국을 시장경제국 지위(Market Economy Status)로 인정하는데 반대하고 있음

■ 미국의 협상 전략과 정책 수단

- 트럼프 행정부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협상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양자 협상을 추구하고 있음
 - 2017년 4월 취임 후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‘100일 행동계획(100 day action plan)’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,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974년 통상법(Trade Act of 1974)을 근거로 USTR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라고 지시하였음
 - 2018년 3월부터 USTR은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

1) 이하 미국 정부의 입장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USTR(2018; 2019a; 2019b)에 의거하였음.

10~25%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음

- 중국에 대한 미국의 최대한 압박은 보복관세 이외에도 다양한 수단이 활용되고 있음
 -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후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감시하고 있음
 - 상무부 산업보안국(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)은 실체 목록(entity list: 实体清单)을 통해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고 있음
 - 미국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(CFIUS)는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 합병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
 - 연방수사국(FBI), 교육부 및 과학재단은 중국 국적은 물론 미국 국적 중국인 연구자와 학생의 기술탈취를 감시하고 있음
- 2018년 5월 이후 2019년 7월말까지 진행된 총 12차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요구사항은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임
 - 중국의 국가 주도 중상주의적 정책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—지적 재산권 침해, 강제적인 기술 이전,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—은 시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
 - 미국은 2019년 초부터 중국의 경제 제도 개혁 이행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행 메커니즘을 중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
 - 최고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의 행정법규의 개정으로 제도 변경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 국가입법권을 가진 전국인민대표대의회의 법률 제정이 필수적임(Horsley 2019)

2) 중국의 주장

■ 미국 책임론²⁾

- 중국은 무역전쟁의 근본적 원인을 개발단계와 경제체제의 차이에서 찾고 있음
 -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 차이 때문에 갈등은 불가피함
 - 트럼프 행정부 전까지 양국은 협상을 통해 갈등 해결을 모색해 왔음
 -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양국의 최고지도부가 참여한 전략경제대화(Strategic Economic Dialogue)에서 쟁점을 논의하였음
-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음
 - 중국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음
 -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은 중국이 양보할 때마다 새로운 요구를 추가했기 때문임

■ 중국의 대응 전략과 정책 수단

-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“무역전쟁에서 싸우길 원하지는 않지만, 그것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지는 않는다(中方不希望打贸易战,但绝不害怕贸易战)”(商务部 2018)는 것임
- 수입보다 수출이 많기 때문에 동일한 규모, 금액 및 강도라는 대등보복 원칙(对等报复原则)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
 - 미국산 수입품 구매를 대폭 축소하고 있음: 농수산물(대두, 수수, 옥수수, 돼지고기 등) 및 액화천연가스(LNG)
 - 상무부가 5월 31일 중국기업에 피해를 미치는 해외 기관이나 개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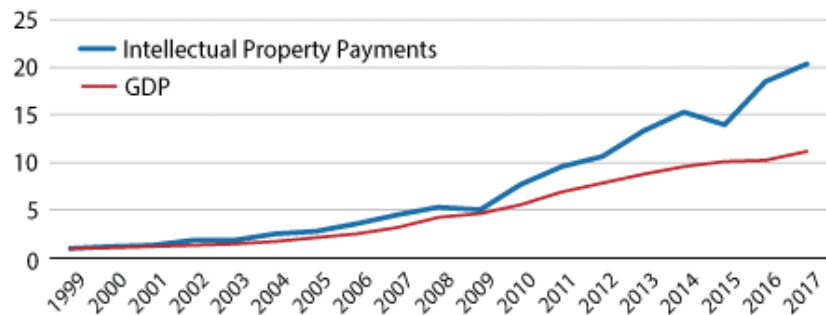
2) 이하 중국 정부의 입장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国务院新闻办公室(2018; 2019)에 의거하였음.

에 대한 ‘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(不可靠实体清单: unreliable entity list)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

- 미국 여행 제한, 미국 상품 불매운동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음
-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출가격 인상폭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음
- 중국산 희토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특정 산업의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위협을 하고 있음
-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함으로써 미국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음

- WTO 가입을 한 후에도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지 않고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음
 - 국제산업 노동 분업 구조에서 중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의 중국 기업과 기술협력은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
 - <그림 1>처럼 미국 지식재산권 사용액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높음
 - <그림 2>에서 중국의 해외 지식재산권 사용액이 한국과 일본보다 더 많으며 증가 속도도 빠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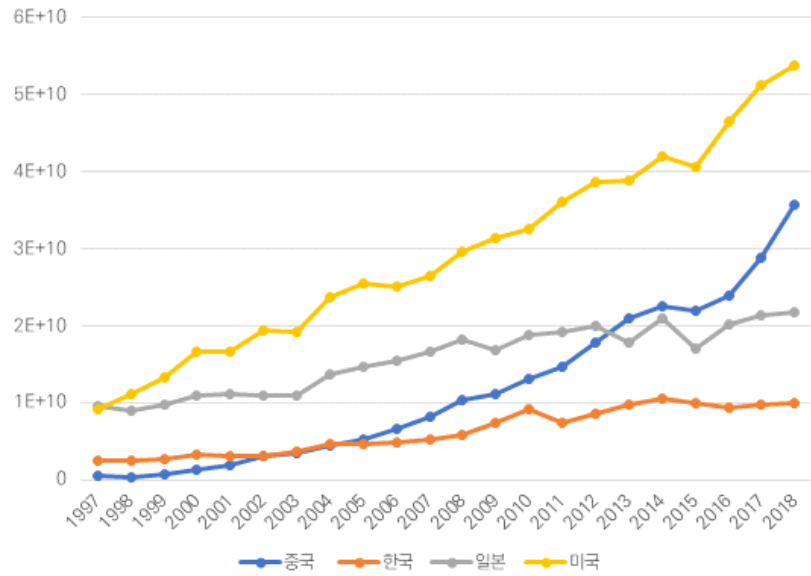
그림 1 |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권 사용액과 GDP 증가(기준: 1999년=1)



SOURCE: World Bank and OECD.

출처: Santacreu and Peake(2019)

그림 2 | 해외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: 미국, 중국, 일본, 한국 (단위: 달러)



출처: World Bank.

3. 영향

■ 세계경제

- 무역전쟁은 거시경제는 물론 소득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
 - 1963-2014년 151개국 사례 분석에 따르면, 관세가 GDP와 생산성을 상당히 감소시켰던 것은 물론 실업 및 불평등을 악화시켰음
 - 관세 부과 후 실질 환율이 평가절상되면서 무역수지 개선(즉 무역적자 축소)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(Furceri et al, 2019)
- IMF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
 - 2018년 부과된 보복관세는 2020년까지 세계경제 성장률의 0.5% 하락시킴
 - 2019년 부과되거나 예정인 보복관세는 2020년까지 0.3% 하락시킴 (IMF 2018:22-21; 2019b:6)

■ 미국경제

- IMF의 세계통합통화재정모델(Global Integrated Monetary and Fiscal model)에 따르면, 미국은 무역전쟁으로 GDP가 0.3-0.6%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(IMF 2019a, 124-127)
 - 설사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타결되어 양국이 작년부터 부과한 보복관세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피해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GDP 0.2-0.3% 감소는 불가피할 것임
 - 만약 미중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양국 모두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25%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음(Caceres et al, 2019)
- 미국에서는 원료와 중간재를 조달하는데 필수적인 공급사슬(supply chain)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위탁생산을 하는 다국적 기업들(특히

전자 및 섬유 산업)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당장 이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(Zumbrun 2019)

-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생산라인을 미국이 아닌 베트남, 말레이시아, 대만 및 태국으로 옮기고 있음

- 무역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물론 공급사슬의 재조정에 수반되는 비용을 다국적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, 이러한 무역이전의 이익은 제한적임(Abiad et al. 2019)

● 무역전쟁의 궁극적 피해는 관세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부담함

- 미국에서 2018년 1월에서 11월까지 부과된 보복관세의 피해는 추가된 세금 비용 123억 달러,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자중손실(deadweight loss) 69억 달러,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해 기업이 공급사슬을 조정해야 하는 비용도 약 1,650억에 달하고 있음(Amiti et al 2019)

- 2018년에 부과된 모든 관세에다 2019년 미국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25%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, 4인 가족 기준 연간 2,389달러를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(Trade Partnership Worldwide 2019)

- 월풀의 제소로 2012년 7월에서 2018년 2월까지 부과되었던 삼성과 LG 세탁기(한국산, 멕시코산 및 중국산)에 대한 추가관세는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

· 관세 부과 후 미국 내에서 약 1,800명(삼성 1,000명, LG 6,000명, 월풀 200명)의 신규 고용이 발생하였지만, 세탁기 가격이 거의 12%(대당 86달러)로 증가하였음

· 관세로 인한 수입은 약 8,200억 달러인 반면, 미국 소비자는 연간 약 15억 달러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

· 이 결과는 신규로 고용된 노동자 1인당 소비자가 연간 815,0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동일함(Flaen et al. 2019)

- 무역전쟁 발발 이후 2019년 7월까지 대중 보복관세를 통해 미국이 획득한 관세 수입은 총 208억 달러임
 -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수입 축소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농민을 구제하기 위해 2018년 5월 120억 달러를 지원하였고, 2019년 5월 160억 달러를 추가하였음
 - 이 결과만 보면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72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음(Swanson and Tankersley 2019)

■ 중국경제

- IMF의 세계통합통화재정모델에 따르면, 중국은 무역전쟁으로 GDP가 0.5~1.5%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(IMF 2019a:124-127)
 - 2019년 1/4분기 GDP 성장률 6.4%
 - 2019년 2/4분기 GDP 성장률 6.2%
- IMF의 2020년 GDP 성장률 예상치는 6%임
 - 중국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이 국내소비를 촉진시켜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고 있음
 - 위안화 가치 및 외환보유고도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음
-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경기둔화 위험은 더 커질 것임
 - 무역전쟁으로 수출이 둔화하면서 고용(특히 광업, 제조업 및 공공 설비산업)이 최소 70만 개에서 최대 1.8~9백만 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
 - 미국이 9월 1일부터 3,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% 관세를 예고대로 부과한다면, GDP 성장률 및 고용은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(Tang 2019)

4. 경과

1) 개요

■ 2018년 협상: 일정과 결과

- 2018년 말까지 한 차례의 정상회담과 네 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였지만, 최종 타결에는 실패하였음
 - 제1차 협상(2월 27일~3월 3일) 류허 부총리의 워싱턴 방문
 - 제2차 협상(5월 3~4일) 므누신 재무장관의 베이징 방문
 - 제3차 협상(5월 15~19일) 류허 부총리의 워싱턴 방문, 무역 분쟁 타결 발표
 - 5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파기
 - 제4차 협상(6월 2~4일) 로스 상무장관의 베이징 방문, 합의안 · 공동성명 채택 없이 결렬
-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담(12월 1일)에서 추가 관세 부과를 90일간 연기하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음³⁾

■ 2019년 협상: 특징

- 6월 28~29일 일본 오사카 정상회담 및 1월부터 7월까지 일곱 차례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였음
 - 제12차 협상은 처음으로 베이징이 아닌 상하이에서 열렸음
- 미국과 중국 모두 협상 대표를 교체하거나 추가하였음
 -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대표를 므누신 장관에서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로 교체하였음
 -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므누신 장관보다 무역 협상에 더 많은

3) 2019년 이전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왕휘(2018) 참조.

경험이 있음(1980년대 USTR 부대표로 대일 무역 협상 참여)
·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월스트리트 출신인 므누신 장관보다
중국에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

- 중국에서는 상무부장 중산(钟山)이 7월 초부터 협상에 참여하고 있음
 - 정치적으로는 시좌진(习家军)으로 류허 부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
 - 저장성과 상무부에서 해외투자 및 무역 협상 등 다양한 경험을 했음

2) 2019년 협상 경과

■ 합의문 작성 및 검토

- 1월 7~9일 베이징에서 미국 무역대표부(USTR)와 중국 상무부는 차관급 협상을 개최하였음
 - 고위급 협상의 방식과 의제를 논의하였음
 - 류허 부총리가 나중에 참석하여 미국 대표단과 면담하였음
- 제5차 고위급 협상(1월 30~31일, 워싱턴)
 - 양국은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
 - 미국이 제기한 구조적 문제에는 강압적으로 기술이전 금지, 지적 재산권의 더 강력한 보호와 집행, 미국 회사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, 미국 상업적 재산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탈취 중단, 보조금 지원과 국유기업을 통한 시장 왜곡 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
 - 미국은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행 메커니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⁴⁾

4) 중국에서는 이행 메커니즘 앞에 쌍방(双向: two-way)을 추가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. 이는 이행 메커니즘이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굴복한 것이 아니라는 의지를 드러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.

- 이외에 미국은 중국에 대두 500만 톤 수입, 의약품 수입 개방을 추가로 요구하였음
- 제6차 고위급 협상(2월 14~15일, 베이징)⁵⁾
 - 인민대회당에서 미국 대표단을 접견한 시진핑 주석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였음
- 제7차 고위급 협상(2월 21~22일, 워싱턴)
 - 구조적 문제(기술이전, 지식재산권 보호, 비관세 장벽, 서비스업 개방)와 함께 농업 및 환율 등 6개 분야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음⁶⁾
 -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후 백악관을 방문한 류허 부총리와 면담한 자리에서 향후 협상의 목표가 양해각서(memorandum of understanding)가 아닌 무역협정(trade agreement)의 체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
 - 미국은 3월 1일 예정된 중국산 제품 2,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 인상(10→25%)을 연기하였음
- 제8차 고위급 협상(3월 28~29일, 베이징)
 - 최종 합의문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음
- 제9차 고위급 협상(4월 4~5일, 워싱턴)
 - 기술이전, 지적재산권 보호, 비관세 조치, 서비스산업, 농업, 무역 역조 및 이행 메커니즘에 대한 문구를 논의하였음

■ 중국의 합의문 수정 요구

- 제10차 고위급 협상(4월 30일~5월 1일, 베이징)
 - 류허 부총리에 따르면, 이번 협상의 쟁점은 미국의 관세 철폐 시

5) 중국 언론은 개최 전에는 '신1차'(新一轮), 개최 후에는 '6차'(六轮)로 보도하였음.

6) 2018년 5월 18일 한 번 사용되었던 시진핑 주석 특사(习近平主席特使)란 직함이 이때 류허 부총리의 직함에 다시 추가되었으나 이후에는 다시 사용되지 않고 있음.

- 점, 중국의 미국 상품 구매 규모, 그리고 합의문의 일부 문구임
- 미국 전문가와 언론에 따르면, 중국은 약 150쪽 분량의 최종합의문 초안을 105쪽으로 축소하는 근본적 수정을 요구하였음
 - 지식재산권 침해, 강제적인 기술이전 및 정부 보조금 제공 등의 금지를 명확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무원(행정부)이 아니라 전국인민대표자회의(입법부)를 통해 국내법을 개정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거부
 - 중국은 기존에 부과한 관세를 어떻게 철폐하고 미국산 제품(특히 농산물)을 얼마나 수입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음
 - 미국은 중국이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해 합의안의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하였음
- 5월 4일 “아주 역사적인 거래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”고 발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트위터에 중국이 역주행(backpedaling; 开倒车)했다고 비판하였음
- 제11차 고위급 협상(5월 9~10일, 워싱턴)
 - 미국의 강경한 분위기에 중국 대표단은 협상의 연기를 검토하다가 하루 늦게 미국으로 출발하였음
 - 미국은 중국의 수정 요구를 최종적으로 거절하였음
 - 협상이 종료되기도 전에 미국은 2,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일부터 10%에서 25%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음
 - 협상 직후 류허 부총리는 원칙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음

■ 미국의 압박 강화와 중국의 반발

- 미국은 최대한 압박을 위해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음
 - 5월 15일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은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실체 목록에 포함했음
 - 미국은 화웨이가 통신장비에 백도어를 설치하여 미국은 물론 동맹국의 군사정보를 빼돌린다고 주장해왔음
 - 이 조치로 화웨이는 제품을 미국에 판매하는 것은 물론 미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
- 6월 2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‘중미 경제·무역 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(关于中美经贸磋商的中方立场)’을 통해 미국의 비판을 반박하였음
 - 중국이 한 가지를 양보를 하면 미국은 다른 한 가지를 더 양보하라는 식으로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왔음
 - 중국은 미국이 상호존중,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 입각해서 중국의 주권과 존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, 중국은 미국과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음
 - 상호존중은 서로 다른 사회제도, 경제체제, 발전 경로와 권리, 핵심이익의 인정을 의미함(国务院新闻办公室 2019)
- 미중 정상회담(6월 29일, 일본 오사카)
 - 미국은 화웨이 제재의 완화,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대량 수입 재개에 합의하였음
 - 7월 9일 미국 상무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는 화웨이 제품에 대한 제재 완화 검토를 발표하였음
 - 중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의 미국산 농산물—옥수수, 수수, 면화 및 돼지고기—의 구매를 허가하였음
- 제12차 고위급 협상(7월 30~31일, 상하이)
 - 협상 장소가 베이징이 아니라 상하이로 바뀌었으며, 상무부장 중

산(钟山)이 대표단에 참여하였음

-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6월 말 오사카 정상회담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음
- 중국은 7월 19일부터 선적이 시작되었다고 반박하면서 화웨이 제재 완화 및 보복관세의 전면 철폐를 요구하였음
- 협상이 특별한 성과가 없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중국이 3,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%를 관세를 9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음

■ 무역전쟁에서 통화전쟁으로 확산

- 8월 5일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평가절하 용인함으로써 1달러=7위안이 붕괴(破七)하였음
 - 미국 재무부는 즉각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음
 -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비판하면서 보복조치를 예고하였음
- 통화전쟁의 위협으로 양국 주식시장 지수가 폭락하고 경기침체의 징후가 가시화되면서 다시 타협을 모색하고 있음
 - 13일 라이트하이저 대표 및 므누신 장관이 류허 부총리(중산 부장, 이강 중국인민은행장, 닝지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배석)이 통화를 통해 향후 협상 의제와 일정을 논의함
 - 13일 미국은 1,560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(휴대폰, 랩톱 컴퓨터, 비디오게임기, 완구, 컴퓨터모니터 및 신발 의류 등)에 대한 10% 관세 부과를 12월 15일까지 연기하였음

표 1 | 2019년 미중 무역전쟁 진행사항

	미국	중국
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차관급 협상 7-9일 베이징에서 USTR과 상무부가 협상 5차 고위급 협상 30-31일 워싱턴에서 구조적 문제를 논의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가져온 류허 부총리를 면담 	
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6차 고위급 협상 14-15일 베이징에서 쟁점을 논의한 후 시진핑 주석을 면담 제7차 고위급 협상 21~22일 워싱턴에서 6개 쟁점을 논의한 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, 3월 1일로 예고됐던 중국산 제품 \$2,000억에 대한 관세율 인상(10→25%) 연기 	
3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8차 고위급 협상 29일 베이징에서 합의문 논의 	
4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9차 고위급 협상 3-5일 워싱턴에서 합의문을 최종 검토 제10차 고위급 협상 30일-5월 1일 베이징에서 합의문에 대해 중국이 대폭 수정을 요구 	
5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측 수정요구를 협상 역주행으로 비판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1차 고위급 협상 9~10일 워싱턴에서 미국이 중국의 수정 요구를 거절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0일 중국산 제품 2,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 10%에서 25%로 인상 16일 상무부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 시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3일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 6월 1일부터 인상하겠다고 발표
6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7-25일 나머지 \$3,250억에 대한 관세 인상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일 2018년 9월 부과된 600억 달러 중 36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관세율을 최대 25%까지 인상, 나머지는 5% 유지 2일 《중미 경제·무역 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》 발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5일 미국 측 요청으로 류허 부총리와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통화 28-29일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비공식 및 공식 양자 정상회담 개최,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: 중국은 대두를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 증대하고 미국은 추가 관계 부과를 무기한 연기 및 화웨이의 미국산 제품 구매를 부분적으로 허용 	
7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9일 USTR이 110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작년 7월 부과한 25% 관세를 1년간 면제 9일 상무부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화웨이 제품의 수입 허가를 검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9일부터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시작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9일 및 19일 류허 부총리 및 상무부장 중산이 라이트하이저 대표 및 므누신 장관과 통화 22일 트럼프 대통령 IT 기업 대표들과 면담, 화웨이 제재 문제 논의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2차 고위급 협상 30-31일 상하이에 개최, 특별한 성과 없이 종료 	
8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일 트럼프 대통령은 3,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% 관세를 9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 5일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일 중국 상무부는 유감을 표하면서 보복을 예고 5일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평가절하 용인: 1달러=7위안 붕괴 (破七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3일 류허 부총리 및 상무부장 중산이 라이트하이저 대표 및 므누신 장관과 통화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3일 1,560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10% 관세 부과를 12월 15일까지 연기 	
9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3차 고위급 협상 미국에서 개최 예정 	

출처: USTR, Press Release; 国务院 关税税则委员会; Bown and Kolb(2019)을 종합

5. 평가

1) 무역불균형

- 미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주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무역(Trade in Value-Added: TiVA)의 관점을 고려해야 함
 - 전통적인 무역통계에서는 중국이 한국, 일본, 독일 등에서 중간재를 수입해서 조립·가공한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중국산으로 분류됨
 - TiVA의 관점에서 중국에서 최종적으로 조립 가공한 상품의 재료와 부품의 원산지를 하나하나 구분해서 통계를 집계한다면,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전통적인 무역흑자보다는 적음
- WTO의 TiVA 통계에 따르면, 중국 총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의 비중은 2005년 26.3%에서 2015년 17.3%로 감소함
 -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서 해외 부가가치의 비중은 2015년 17.5%였음
 - 주력 수출품인 컴퓨터 및 전자제품에서 해외 부가가치의 비중은 2015년 30.5%로 평균보다 약 2배 정도 높음(WTO 2019b)
-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것은 중국이 일본과 신흥공업국을 대신해 글로벌 가치사슬의 허브로 부상했기 때문임
 - <표 2>를 보면,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10%에서 2013년 73%까지 급증함
 - 일본과 신흥공업국(한국, 대만, 싱가포르, 홍콩)의 비중은 1990년 75%에서 2013년 12% 이하로 급감함(WTO 2019a:35~38)
- 중국경제의 재균형 정책으로 저축률이 하락하면 무역흑자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(Bekkers et al. 2019)

표 2 | 미국의 상품 무역수지 적자 비중: 주요 교역국

(단위: %)

	캐나다	일본	신흥 산업국	독일	멕시코	ASEAN g*	중국	기타 OECD	기타	G7
1990	7.5	49.4	25.7	10.2	-1.9	6.1	10.3	-6.7	-0.5	70.4
1995	6.7	45.3	10.8	10.0	5.7	13.1	24.2	-6.0	-9.8	66.9
2000	6.2	24.9	9.1	8.3	3.6	11.5	25.5	7.3	3.7	45.1
2005	4.1	15.1	3.7	8.5	4.2	9.4	37.0	12.9	5.1	34.3
2008	-2.2	16.5	1.6	8.6	5.8	11.1	57.6	9.2	-8.2	31.0
2009	-7.0	14.6	1.7	8.0	6.8	13.0	70.5	7.9	-15.5	21.7
2010	-5.9	15.1	-0.2	7.9	8.1	11.0	67.1	9.7	-12.8	22.9
2011	-7.5	15.0	-0.2	10.4	6.1	11.1	67.6	9.0	-11.5	23.4
2012	-8.6	16.9	0.1	12.2	5.6	11.7	70.6	7.3	-16.0	27.0
2013	-9.5	16.4	-1.4	13.8	5.2	12.8	72.6	8.5	-18.4	28.4
2014	-8.4	13.5	0.4	13.2	5.2	13.6	67.7	11.0	-16.2	25.5

*ASEAN 9(싱가포르 제외)

출처: WTO(2019a, 35)

2) 중국의 위협

- 미국 내에서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임)
 - 중국을 적으로 보는 강경론과 경쟁자로 보는 유화론이 대립하고 있음
 -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과 기업 사이에서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아직까지 우세함
 -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도 강경론을 수용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

■ 대중 강경론

- 대중 강경론은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공산당과 협력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체제 변경(regime change)을 목표로 내걸고 있음

7) 인민일보에 공미증(恐美症)과 숭미증(崇美症)에 대한 비판 논평을 볼 때, 중국에서도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논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임(常盛 2019; 马壘原 2019)

- 정부 안에서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정책국장, 윌버 로스 상무장관, 로버트 라이시저 USTR 대표, 의회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, 정부 밖에서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최고 전략가, 마이클 필즈베리 허드슨연구소 연구원 등이 주도하고 있음
- 미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(Diamond and Orville Schell 2019)
-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민주당에서도 척 슈머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
- 2019년 5월 스티븐 배넌은 ‘현존위협위원회: 중국(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: China)’의 설립을 주도
 - “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하는 한 중국과 공존할 희망은 없다.”
 - 미중 관계를 냉전과 같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체제가 대결하는 구조로 보는 이 위원회는 중국을 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대중 유화과를 배신자로 맹비난하고 있음(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2019)
- 정보기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음
 - “중국은 미국 패권(Pax Americana) 하에서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평화와 지구적 번영의 시대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현 국제 질서의 원칙과 규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”(Fanell 2019)

■ 대중 유화론

- 대중 유화론은 강경론이 중국의 국력, 위상 및 의도를 과대평가하는 오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비판함(Johnston 2019a; 2019b)
 -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, 그 나머지 분야의 격차는 아직도 상당히 큼

- 미국의 입장에서 최대한 압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그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음
- 최대한 압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 함께 행동해야 하지만,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이와 반대로 진행되고 있음(Drezner 2019)
- 대중 유희론은 중국을 경쟁자로 보면서 협력을 통해 중국의 자유화와 민주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(Pollack and Bader 2019)
 - 중국 공산당과 정부 내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메커니즘을 존중하는 간부들과 교류를 통해 중국의 자발적인 개혁을 유도할 수 있음
 - 중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 강경한 대책은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음(Fravel et al. 2019)⁸⁾

8) 실제로 중국은 무역전쟁 발발 이후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음(Bown et al. 2019)

6. 전망

■ 단기

- 무역전쟁은 이미 투자전쟁, 기술전쟁, 환율전쟁, 금융전쟁으로 비화했기 때문에 패권 경쟁의 전초전이 되어 버렸음
 -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인 양보를 통해 종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
 - 향후 협상의 현실적인 목표는 종전에서 휴전으로 격하될 수밖에 없음
- 설사 휴전에 성공하더라도 양국 관계는 무역전쟁 이전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함
 - 패권 경쟁에서는 상호이익을 공유하는 차이메리카(Chimerica) / 공동의존(codependency)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
 - 따라서 신냉전 또는 냉전 2.0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

■ 장기

- 무역전쟁 이후 미중 관계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 격차, 미국 제조업 경쟁력 및 중국의 경제 및 산업구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
-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 격차가 계속 줄어 2030년대에는 비슷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
 - 2104년 구매력 기준 GDP에서 세계 1위가 되었던 중국이 2030년을 전후 명목 GDP에서도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됨
 - 중국의 대외의존도가 낮아지고 대신 나머지 국가들의 대중의존도가 상승할 것임(Woetzel et al, 2019)

- 중국의 경제 및 산업 구조가 수출에서 내수, 제조업에서 서비스업, 국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되고 있음
 - 시진핑 정부는 중진국/중간소득 함정(中等收入陷阱)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신장타이(新常態), 공급측개혁(供給側改革), 중국제조(中国制造) 2025를 추진해 왔음
 - 중국 내에서 공급사슬이 강화된다면, 세계 및 지역 차원의 공급사슬에 대한 의존도는 하락할 것임(Lund et al. 2019; Ang 2018)

- 2012년 이후 중국은 제조업 생산량에서 미국을 능가한 후,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해왔음
 -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능력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
 - 2017년 중국의 총 연구개발(R&D) 투자액은 1조7,600억 위안으로 세계 2위
 - 특허 신청 건수는 1,328만 건으로 7년 연속 세계 1위
 - 제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인공지능, 제5세대 통신, 블록체인, 핀테크 등에서 미국을 맹렬하게 추적하고 있음
 - 그러나 반도체 및 바이오에서는 미국과 격차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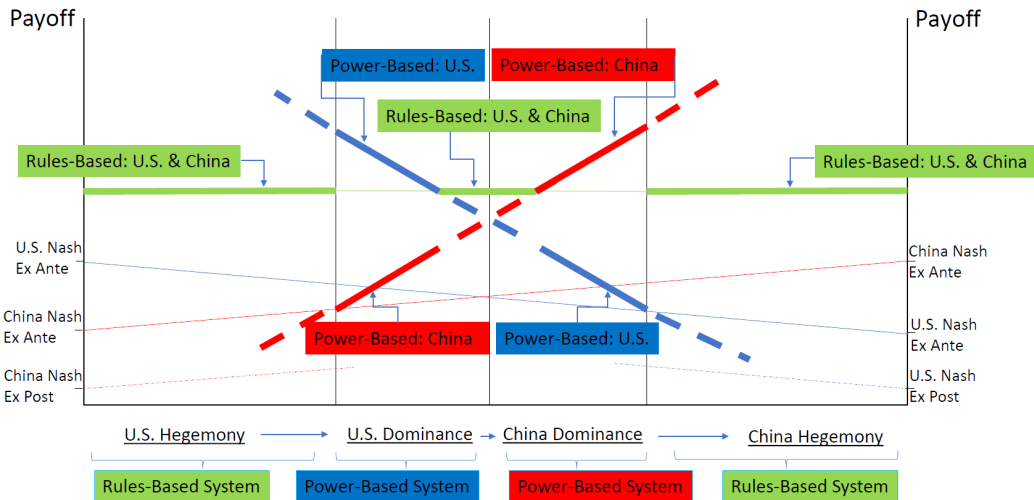
표 3 | 2015년 세계 10대 제조업 국가

국가	생산액(10억 달러)	제조업의 GDP 비중(%)	세계 제조업의 비중(%)
중국	2,010	27	20
미국	1,867	12	18
일본	1,063	19	10
독일	700	23	7
한국	372	29	4
인도	298	16	3
프랑스	274	11	3
이탈리아	264	16	3
영국	244	10	2
대만	185	31	2

출처: West and Christian Lansang(2018)

- 경제 규모, 경제 및 산업 구조, 제조업 경쟁력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게 된다면 중국 중심의 세계무역체제가 등장할 수도 있음
 - 현재 무역전쟁은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체제에서 중국 주도의 규칙 기반 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현상임
 - <그림 3>을 보면, 미국은 패권기에 건설했던 자국 중심 규칙 기반 체제보다 권력 기반 체제에서 보상이 현재 더 크기 때문에,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음
 - 중국도 현재 미국중심 규칙기반 체제보다 권력 기반 체제에서 보상이 크기 때문에,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있음
 - 과도기에 양국이 합의한 규칙 기반 체제를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내쉬 균형에 도달하기 때문에 무역전쟁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음
 - 그렇게 하지 않고 양국이 모두 자국 중심의 권력 기반 체제를 고수한다면, 중국이 미국을 압도한 후 자국 중심의 규칙 기반 체제를 구축할 때까지 무역전쟁이 지속될 수도 있음

그림 3 | 세계무역체제의 변화



출처: Mattoo and Staiger(2019:19)

참고자료

- 이왕휘(2018), “미중 무역전쟁: 미국 내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저항과 중국의 대미 로비”, 『국방연구』.61(4).
- 余永定(2019), “中美贸易战的回顾与展望”, 『新金融评论』, 2018年03期
- 国务院新闻办公室(2018), 「关于中美经贸摩擦的事实与中方立场」
- 国务院新闻办公室(2019), 「关于中美经贸磋商的中方立场」
- 商务部, “商务部新闻发言人就美301调查决定发表谈话”, <http://www.mofcom.gov.cn/article/ae/ag/201803/20180302722679.shtml>(검색일: 2019-08-15)
-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, <http://gss.mof.gov.cn/zhengwuxinxi/zuixingengxin/index.html>(검색일: 2019-08-15)
- “人民论坛: 摒弃“恐美崇美”心态”, 人民日报, 2019-06-11, <http://opinion.people.com.cn/n1/2019/0611/c1003-31128389.html>(검색일: 2019-08-15)
- “人民论坛: 中国人要有中国人的志气”, 人民日报, 2019-06-27, <http://opinion.people.com.cn/n1/2019/0627/c1003-31197472.html>(검색일: 2019-08-15)
- Abiad, Abdul, Kristina Baris, John Arvin Bernabe, Donald Jay Bertulfo, Shiela Camingue-Romance, Paul Neilmer Feliciano, Mahinthan Joseph Mariasingham, and Valerie Mercer-Blackman. 2018. The Impact of Trade Conflict on Developing Asia, ADB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No. 566.
- Amiti, Mary, Stephen J. Redding, and David E. Weinstein. 2019. The Impact of the 2018 Trade War on U.S. Prices and Welfare, NBER Working Paper No.25672.
- Ang, Yuen Yuen. 2018. Domestic Flying Geese: Industrial Transfer and Delayed Policy Diffusion in China. China Quarterly 234.
- Bannon, Stephen K. 2019. We're in an Economic War with China: It's Futile to Compromise, Washington Post(May 6)
- Bekkers, Eddy, Robert Koopman, and Carolina Lemos Rego. 2019. Structural Change in the Chinese Economy and Changing Trade Relations with the World, CEPR Discussion Papers No.13721.
- Bown, Chad P. and Melina Kolb. 2019. Trump's Trade War Timeline: An Up-to-Date Guide,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.
- Bown, Chad P., Euijin Jung and Eva(Yiwen) Zhang. 2019. “Trump Has Gotten China to Lower Its Tariffs. Just Toward Everyone Else”.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.
- Caceres, Carlos, Diego A. Cerdeiro and Rui C. Mano. 2019. Trade Wars and Trade Deals: Estimated Effects using a Multi-Sector Model, IMF Working Paper No.19/143,
- 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: China. <https://presentdangerchina.org/> (검색일: 2019-08-15)
- Diamond, Larry and Orville Schell. 2019. China's Influence & American Interests: Promoting Constructive Vigilance, revised edition, Stanford: Hoover Institution Press.
- Drezner, Daniel W. 2019. Why the New China Consensus in Washington Scares Me, Washington Post(July 25)

- Fanell, James E. 2019. Open Letter to President Trump: Stay the Course Letter to President Trump(July 17)
- Flaen, Aaron B., Ali Hortaçsu, and Felix Tintelnot. 2019. The Production Relocation and Price Effects of U.S. Trade Policy: The Case of Washing Machines, NBER Working Paper No. 25767
- Fravel, M. Taylor, J. Stapleton Roy, Michael D. Swaine, Susan A. Thornton and Ezra Vogel. 2019. China is Not an Enemy, Washington Post(July 3)
- Furceri, Davide, Swarnali A. Hannan, Jonathan D. Ostry, and Andrew K. Rose. 2019.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Tariffs, IMF Working Paper No.19/9.
- Horsley, Jamie P. 2019. A Primer on How Chinese Law Might Enforce a US-China Trade Deal, Brookings Institution.
- Ignatenko, Anna, Faezeh Raei, and Borislava Mircheva. 2019. Global Value Chains: What are the Benefits and Why Do Countries Participate?, IMF Working Paper No.19/18.
- IMF. 2018. World Economic Outlook(October)
- IMF. 2019a. World Economic Outlook(April)
- IMF. 2019b. 2019 G-20 Surveillance.
- Jones, Lin, Meryem Demirkaya, and Erika Bethmann. 2019. Global Value Chain Analysis: Concepts and Approaches,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Economics.
- Johnston, Alastair Iain. 2019a. Shaky Foundations: The ‘Intellectual Architecture’ of Trump’s China Policy. Survival 61(2)
- Johnston, Alastair Iain. 2019b. The Failures of the ‘Failure of Engagement’ with China. Washington Quarterly 42(2)
- Kennedy, Scott. 2019. The Challenges of the ‘Crazy Uncle’ Strategy,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.
- Lund, Susan, James Manyika, Jonathan Woetzel, Jacques Bughin, Mekala Krishnan, Jeongmin Seong, and Mac Muir. 2019. Globalization in Transition: The Future of Trade and Value Chains. McKinsey Global Institute.
- Mattoo, Aaditya and Robert W. Staiger. 2019. Trade Wars: What do They Mean? Why are They Happening Now? What are the Costs?,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.8829.
- OECD. International Trade: Exports: Value(goods): Total for China.
- Pollack, Jonathan D. and Jeffrey A. Bader. 2019. Looking Before We Leap: Weighing the Risks of US-China Disengagement, Brookings Institution.
- Santacreu, Ana Maria and Makenzie Peake. 2019. A Closer Look at China’s Supposed Misappropriation of U.S. Intellectual Property. Economic Synopses, No.5.
- Swanson, Ana. 2019. A New Red Scare Is Reshaping Washington, New York Times(July 20)

- Swanson, Ana and Jim Tankersley. 2019. Tariffs on China Don't Cover the Costs of Trump's Trade War, New York Times(July 15)
- Tang, Frank. 2019. US Trade War has Cost China 'Almost 2 Million Industrial Jobs', Investment Bank CICC Says, South China Morning Post(July 24)
- Trade Partnership Worldwide, LLC. 2019. Estimated Impacts of Tariffs on the U.S. Economy and Workers.
- USTR, Press Release <https://ustr.gov/about-us/policy-offices/press-office/press-releases/2019>(검색일: 2019-08-15)
- USTR. 2018.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into China's Acts, Policies,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, Intellectual Property, and Innovation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.
- USTR. 2019a. USTR 2018 Report to Congress on China's WTO Compliance.
- USTR. 2019b. Press Release: U.S. Trade Representative and the U.S. Department of Treasury respond to the "White Paper" issued by China on June 2, 2019.
- Veugelers, Reinilde. 2019. China is the World's New Science and Technology Powerhouse, Policy Contribution No.19.
- West, Darrell M and Christian Lansang. 2018. Global Manufacturing Scorecard: How the US Compares to 18 Other Nations, Brookings Institution.
- Woetzel, Jonathan, Jeongmin Seong, Nick Leung, Joe Ngai, James Manyika, Anu Madgavkar, Susan Lund, and Andrey Mironenko. 2019. China and the World Inside the Dynamics of a Changing Relationship. McKinsey Global Institute.
- World Bank. Charges for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, Payments(BoP, Current US\$). <https://data.worldbank.org/indicator/BM.GSR.ROYL.CD>(검색일: 2019-08-15)
- WTO. 2019a.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: Technological Innovation, Supply Chain Trade and Workers in a Globalized World.
- WTO. 2019b. Trade in Value Added and Global Value Chains: China.
- Xie, Qingnan and Richard B. Freeman. 2019. Bigger Than You Thought: China's Contribution to Scientific Publications, China & World Economy 27(1)
- York, Erica, Kyle Pomerleau, Robert Bellaore. 2019. Tracking the Economic Impact of U.S. Tariffs and Retaliatory Actions, Tax Foundation.
- Zumbrun, Josh. 2019. When It Comes to Tariffs, Many U.S. Companies Are on China's Side, Wall Street Journal(June 27)